

# 사전 개정작업 통해 범스페인어권 통합 꾀한다

왕립 아카데미, 22번째 개정판 사전 펴내

정창 |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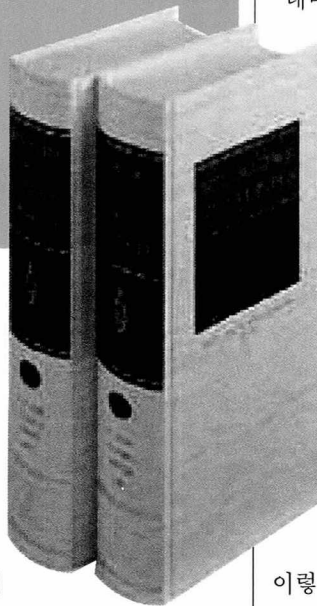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Real Academia Española)에서 스페인어 사전(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개정판을 내놓았다. 지난 10월에 전 세계 출판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22번째 개정판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5백주년 기념 정책 사업의 일환이었던 1992년판(21번째)을 펴낸 지 거의 10년 만의 결실이다.

흔히 사전 편찬이나 개정작업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지적 인프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전이 나올 때마다 그 자체만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한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고유 언어를 지키려는 의지와 그 방대한 작업이 지니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 역시 동일어권 사전의 형식적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개정판을 낼 때마다 자국의 전통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유무형의 자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왕립 아카데미 원장인 라 콘차가 “《정통 스페인어》사전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섰다”고 밝힌 것처럼 그들 역시 이번 개정판에 거는 기대와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것 같다.

## 새로운 기술용어 · 실용어 대폭 수용해

먼저 왕립 아카데미는 이번 개정판을 통해 범스페인어의 통합화를 시도했다. 총 88,431개의 낱말(이중에서 이전의 사전에서 볼 수 없었던 11,425개의 낱말을 가미)을 실고 있는

스페인 왕립 아카데미는 이번 개정판을 통해 범스페인어권의 통합을 꾀했다. 사진은 왕립 아카데미가 펴낸 22번째 개정판 《스페인어 사전(전2권)》.



개정판을 살펴보면 여느 사전들의 개

정판처럼 신조어나 외래어를 비롯해 풍부한 어휘와 표현의 범례를 확충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세기 말미의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기술 용어들과 동일어권(중남미를 비롯해 미국과 필리핀까지)의 실용어들을 적지 않게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국이 내세우는 전통과 권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식’처럼 사전의 빈 공간을 차지하던 고어나 용도 폐기된 낱말들을 6천개나 삭제했다가 하면, 동일어권 국가들의 학술원과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각 나라로 유입된 외국어나 일부 국가의 특성적인 낱말들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판에서 정작 주목되는 것은 언어의 상호 소통성을 내세워 그들이 동일어권 국가는 물론 자국(스페인에는 여러 언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란어) 내의 유대성을 강화하는 범스페인어권 통합을 꾀했다는 점이다. 이런 그들의 의도는 개정판 출간에 맞춰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스페인어 국제 회의’에서 오늘날의 문명 대립

과 충돌이 언어 소통의 부재에도 상당한 요인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일어권 국가들과의 상대적 거리감과 이질성을 좁히기 위해 무엇보다 언어의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다음은 거의 혁신적으로 단장된 왕립 아카데미의 웹사이트(www.rae.es)다. 역시 개정판 사전의 출간과 맞춰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웹 서비스는 ‘모두에게 열린’ 학술원이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든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제 왕립 아카데미에서 편찬한 사전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0년이 아닌 2, 3개월 만에 필요한 언어를 정리해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됐다.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열람 서비스 병행해

이렇듯 “당장 오늘 오후부터 새로운 사전 개정 작업은 다시 시작된다”는 그들의 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구체화된 것은 무엇보다 이미 12년 전부터 다가올 밀레니엄 시대에 대비, 사전의 정보화 작업을 계획하는 한편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IBM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우정어린’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의식 변화에 있다. 사실 왕립 아카데미는 스페인어가 인터넷 언어에서 영어(70%)를 제외한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와 거의 비슷한 약 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원장 대행인 무니시오가 “IBM은 컴퓨터와 함께 펠리페 4세의 문을 통해 들어왔고, 이미 왕립 아카데미의 정신을 개혁시켜 놓았다”며 “불과 25년 전만 하더라도 학술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일 정도였다”고 토로한 말에서 드러나듯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 약점을 파악하고 의식 구조의 개혁을 통해 스페인에서 정보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진보된 ‘언어 중심지’로 변모시켜 놓음으로써 자국의 전통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동일어권 내에서의 진정한 언어 중주국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쾌거를 이뤄 낸 것이다. ■